

 			
이 자료는 수령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자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실장	전영건 실장(053-718-8230)	담당자	이태영 책임(053-718-8383)

이용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6대 원장 취임

이용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이 8월 11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통상부 소재융합 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산업 및 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장은 취임 메시지에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기평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별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용필 원장 취임사

내일을 바꾸는 기술, 내일을 빛내는 청력

[별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용필 원장 취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용필입니다.

먼저 국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핵심 전문기관으로 굳건한 위상을 가진
오늘의 산기평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산기평
의 원장으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
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으로서 무게를 깊이 새기며, 우리나라 산
업기술 연구개발의 발전과 산기평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기평 직원 여러분!

지금 세계 산업과 경제의 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경제안보와 자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기술과 핵심소재·부품을 보유한 국가가 공급망을 주도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성장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산업기술은 더 이상 산업정책의 지원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산업기술수준조사에서 확인했듯이 기존 주력산업은 경쟁국의 빠른 추격을 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적 상황은 대한민국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Manufacturing AX(M.AX))을 통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산업기술 연구개발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산기평의 사명입니다.

이제 산기평은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산업기술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최고의 산업기술 혁신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산기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네 가지 방향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제조 인공지능 전환과 미래 전략기술 혁신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맥스(M.AX)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산기평은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이끄는 핵심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업별 인공지능 모델과 제조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제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판기술을 비롯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여 도전과 혁신의 디엔에이(DNA)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제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기술과 핵심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모빌리티와 조선, 방산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재난안전, 표준 등 국민의 삶과 기업의 시장 진출에 직결되는 분야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과제 종료와 함께 사장되지 않도록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이 투자와 금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도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산기평은 이제 산업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업기술정책을 더욱 두텁게 뒷받침하는 역량을 갖추야 합니다.

세계 산업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미래 산업과 전략기술을 가장 먼저 제시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제안하는 정책 역량을 갖추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별 기술전략과 미래 유망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으로 환류시키겠습니다. 한편, 우리 업무 방식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기획과 평가, 성과관리 전반에 에이전틱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만들겠습니다. 평가와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연구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과 전략기술 확보에 대한 전략과 국가균형발전과 기술안보 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산기평 직원들께서 업무에서는 보람을 찾고, 개인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정책부터 연구개발 평가·관리, 공급망과 글로벌 협력, 기관 운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원팀(ONE-TEAM) 산기평'을 만들겠습니다.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산기평의 경쟁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단 한 번의 부정과 불공정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청렴과 윤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 기관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경영의 어떤 성과와 목표도 직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작은 위험 요인까지 선제적으로 살피는 사람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산기평을 넘어, 우리가 지원하는 연구 현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산기평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혁신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변화의 속도를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장부터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국가와 산업을 위한 결정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그 책임은 원장인 제가 지겠습니다.

“좋은 미래는 멀리 내다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산기평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산업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연구자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갑시다.

대한민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에서 산기평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한 기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임기 동안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산기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6대 원장 이용필